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9년 8월)

일시	2019. 8. 29. 목. 오후 5시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요수, 김태진, 류한호, 박미자, 이묘숙, 임철원, 최선희, 최영태(8명)	
	회사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박수인 취재부장, 황형철 기획심의부 차장	

■ 회의 내용

- 황형철 기획심의부 차장 : 15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하셨다. 성원이 됐으므로 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시겠다.
- 최영태 위원장 : -바쁘신데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세계수영대회와 마스터즈수영대회도 끝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MBC도 방송을 통해 역할을 잘 해줬다고 본다.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사장님께서서는 부득이 업무 일정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다. 이 점 양해를 구한다.
- 최영태 위원장 : -주요 업무보고를 해달라.
-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 -작년에 제작한 <핑크피쉬> 3부작이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지역 교양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돼 9월 3일 시상식이 있다. <핑크피쉬> 수상작을 9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0시 5분에 3회 연속 방송하고, 올해 새롭게 제작한 7편도 연이어 매주 방송한다. 인기 셰프들과 배우 박철민, 방송인 다니엘 씨 등이 참여해 흥어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졌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드린다. 아시아 각국의 밴드경연 프로그램인 <아시안 탐 밴드>를 야심 차게 준비 중이다. 경연을 통과한 팀이 이곳에 와서 열전을 벌인다. 구체적 일정은 향후 안내하도록 하겠다.
- 박수인 취재부장 : -8월에는 마스터즈수영대회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정치 인생을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모식도 생중계했다. 소설가 황석영 특강 <김대중과 우리의 꿈>, <김대중과 한국정치사> 등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의미 있는 방송을 했다고 본다. 도시철도 2호선, 광주형 일자리 법인 출범, 한빛원전 등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제1회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가 10월 27일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열린다. 문학관을 출발해 무등산권 주요 명소를 통과하게 된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유적을 보여주는 코스다. 소재원, 유둔재 고개, 물염정, 물염적벽, 창랑적벽을 차례로 통과한 다음, 동복호를 끼고 도는 단풍길을 따라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구까지 달릴 수 있도록 구성된다. 10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정 1주년을 자축하고 지역민들의 축제로 진행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최영태 위원장 : -편성제작과 보도, 기타 이 부분 보고와 관련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
- 김태진 위원 :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선임 관련된 문제가 상당한 화두이다. 뉴스 데스크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특히 선임철회 요구와 관련하여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네 차례 각기 다른 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쉬운 점은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은 뉴스 내용만으로는 왜 여러 단체 및 시의원들이 사임을 촉구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글로벌모터스의 이사회 구조, 시에서 박광태 전 시장을 선임한 배경, 법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선임이 불가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취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 8월 27일 뉴스데스크에서 롯데쇼핑 환원금에 대한 보도는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지금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된다. 일회성 보도로 끝나지 않고 향후 환원금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취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청소년 100억, 청년 30억으로 잡혀있는 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지면 환원금 활용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류한호 위원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보도는 전반적으로 대회의 의미에 비하여 그 비중이 낮았다. MBC는 매일 뉴스에 중점을 두고, 특집으로는 4회만 다룸으로써 양적으로 지나치게 적다는 느낌을 줬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적 메가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역 미디어의 관심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중계권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콘텐츠를 최대한 확보하여 방송 분량을 늘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 유튜브 등 디지털시대에 대한 대응전략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미디어, 특히 영상미디어는 유튜브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TV를 통한 방송시청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이를 모바일이 대체하고 있는 방송시청행태 변화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더욱이 방송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는 수익성 증대와 방송디지털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용한 접근법이며, 이를 위한 광주MBC 차원의 TF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 광주MBC 홈페이지는 시의적절하고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방송과 홈페이지 게시 사이에 시차가 너무 크게 존재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 일부 시청자의 시차에 대한 불만 제기가 있다. 시사교양 영역의 <김낙곤의 시사본색>의 경우 최근 게시물은 2019년 3월 17일 방송분이 최신의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찾아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 라이프 영역의 <테마기행 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 박미자 위원 : -라디오 캠페인 중 성평등의 일환으로 인식전환의 기회를 위한 캠페인이 반가웠다. 저출산을 저출생, 유모차는 유아차 등 성평등의 용어에 대한 홍보는 반가운 캠페인이었다. 저출산의 책임이 아이를 출산하는 여자에게만 있지 않다. 또한 유모차라는 한계를 넘어 유모차는 엄마만 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용어를 인식시킴으로써 성평등의 일환으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 같다. 공영방송의 역할로 성평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송으로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
 - 뉴스거리의 부족시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한 뉴스 내용은 누가 선정하는지,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게 공영방송의 뉴스에 나올만한 사안인가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노승일의 음주운전 사과를 sns에 올린 것 또한 인터뷰형식도 아닌 노승일 씨의 폐북 사진 한 장으로 소식을 전한 것이다. 광주시민이 노승일이라는 개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그에 대한 사과의 말을 sns에 올린 점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본다. 반대로 박광태 전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대표로 선임된 것을 반대한 시의회 의원 4명의 소식은 자질 부족과 부적절한 인사조치이기에 반대한다고 아주 간략하게 소식을 전했다. 광주형 일자리 법인기관은 몇백 억의 투자, 특히 광주시 또한 제1 주주인 기관으로 광주시민이 정확히 알아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와 왜 부적절인가에 대한 내용 언급 없이 지나쳐 버렸다. 중차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다뤄진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뉴스 내용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소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오매 전라도>는 매우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진행도 매끄럽고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는 시민 패널들도 시의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8월 14일은 광복절을 앞두고 현장의 시민들과 퀴즈를 풀어보는 인터뷰는 매우 신선하고 의미 있었다고 본다. 한 가지, 시청자 연령 제한이 12세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다. 방송시간대가 저녁식사 시간대라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게 되는 시간 때인데 12세 이하 시청불가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매 전라도>가 전체연령이 시청 가능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건지 질문드린다.

- 이요숙 위원 :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평화민주당 국회의원의 탈당 관련 인터뷰가 3회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각각의 입장을 듣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같은 내용의 질문과 조공은 뻔한 내용의 입장에 대한 인터뷰가 그다지 시사적인 중요성은 없었던 것 같다. 지루하기도 혹은 관심이 가지 않는 내용이 연속으로 진행되어 방송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8월 26일 2부 진행 시 광고방송으로 연결되는 타임에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2초 정도 방송이 없어 진행자가 다시 안내 멘트를 하면서 시간을 메꾸게 되었는데 기술 스태프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라디오칼럼>은 8월 20일 방송사고가 있었다. 칼럼이 송출되는 동안 다른 전파가 함께 송출되어 혼선이 생겼다. 한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꼬이고 심지어 칼럼 중 광고내용까지도 겹쳐 방송이 되었다. 진행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
- 임철원 위원 : -<황동현의 시선집중> 구길용의 시사돋보기 코너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 국내외 정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대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청취자들의 관심도 또한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각 주제들을 지역민의 시각에서 다루어 쉽게 이해하고 공감이가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 소식을 전하며 협력 의사를 철회하거나 협력하지 않은 기관 및 기업명을 열거하였는데 언뜻 이들을 나무라고 못마땅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나름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을 텐데 결과만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평가한 거 같아 아쉬운 느낌이 든다. 상생과 협업 그리고 화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좋을 것 같다.
- 최선희 위원 : -<김낙곤의 시사본색> 김대중 서거 10주기 특집에서 정대철 의원의 대담이 방송됐다. 약 1시간에 걸쳐서 “김대중과 한국정치사”에 대해 대담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서거 10주기에 걸쳐서 꼭 필요한 제작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개인과 집안에 관한 히스토리가 전개되는데 내용은 훌륭한 선친부터 얽힌 사연을 중심으로 김대중과의 정치사를 읽어내는 데는 굵직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 맥을 풀어주고 있었다. 촬영 여건이 달았다면 스튜디오가 아닌 관련된 공간을 중심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나 목포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비롯해 10주기 관련 다양한 사진전을 중심으로 한 자료들을 배경으로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훨씬 더 알차고 생동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부 “오늘의 김대중 내일의 김대중”은 18일 결방에 이어서 25일에 특집 제2부가 이루어지면서 MC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하고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가 약간은 어색한 부분으로 작용되었다. 스튜디오 구성이 엠씨 일인과 패널 이인이 많은 편인데 이번만큼은 엠씨 일인과 패널 삼인으로 구성되었고 젊은 패널을 중심으로 차세대의 세대감이 훨씬 느껴졌다. 부모 세대가 가졌던 의식과 의미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모처럼 스튜디오가 화사하고 후끈 달아오르는 느낌이 강했다.

-<라디오칼럼>에 나온 김갑주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는 시각장애를 이겨낸 기업가다. 여행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월등히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적 배려와 환경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칼럼은 다뤄지고 있다. 실업자가 많은 장애인들이 여행을 비롯한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집이나 좁은 공간에서 보내야 하니, 삶의 질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여행 실태조사 등 적절한 자료를 사용하여 타당성을 높였다.

○ 김요수 위원 : -김대중 서거 10주기를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와 황석영 작가의 ‘김대중과 우리의 꿈’ 강의, 김광진 전 국회의원의 김대중 회고 등 시대의 큰 나무인 김대중을 여러 각도로 다뤘다. 동교동계로 일컬어지는 가까운 인연들의 좌절과 위기 극복 이야기는 민주주의를 찾고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민족의 선구자’로 김대중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재조명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주사회의 여정을 깨닫게 했다. 김대중의 삶이 곧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여서 김대중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길잡이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짧고 임팩트한 3~5분 짜리의 재편집본이 유튜브 등에 노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이들이 보고 느끼는 파급 효과가 필요하다. 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니까. 동교동을 비롯한 가까운 인연들의 증언식 인터뷰도 필요하겠지만, 젊은 경제인, 젊은 정치인, 젊은 문화인들이 느끼는 김대중을 조명해보는 시도도 필요하다. 젊은이에게 어필되고, 젊은이들이 알아차리는 김대중이 필요하다. 이제 김대중은 동교동의 김대중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뜻대로 삼아야 할 김대중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느낀 김대중 이야기는 새로웠고, 그 끝 무렵에 1분짜리 동영상은 울림이 크다. 동영상에 깔린 노래, 에드 시런의 오텀 리브스 선곡도 좋았다.

-<오매! 전라도>에서 진도대교와 진도 타워, 드론 영상은 눈을 떼지 못하게 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낮뿐 아니라 밤의 영상 또한 방문하고 싶은 호기심을 불렀다. 역사의 포인트와 지형의 포인트를 짚어주어서 귀 또한 즐거웠다. 그곳에 가면 누구나 할 수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로 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림산방’을 ‘울림산방’으로 읽지 않아서 귀에 거슬렸다. 우리 지역에서 낮선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 경

북 예천의 금당실 마을, 전주의 점묘화가 김주철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지역과 교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광주 지역의 이야기를 줄여서는 안 되는데 아쉽다. 제작비 때문이겠지만 지역 MBC가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한 음식을 내놓는 ‘체인점화’ 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고려인 역사박물관’은 고려인의 발자취를 알게 했고, 고려인들의 현재를 느끼게 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모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고려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처럼 여러 꼭지를 만들어 여러 날 방송해도 괜찮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편성표를 보면서 광주MBC의 자체 제작율이 정말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제작비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 제작율을 높이기 쉽지는 않겠다. 요즘 트렌드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방송의 방향과 제작 방식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다만 안타깝다.

- 최영태 위원장 :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광주MBC가 김대중 특집방송을 했다. 이 프로그램들 중 흥피에 울려져 있는 <화제의 영상: 일본의 우경화를 예언한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매우 좋다. 김 대통령은 이 특강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발전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튼튼함에 비해 일본 민주주의는 점령자 맥아더(미국)의 압박에 의해 타의적으로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피를 흘리지 않은 피동적 민주주의 역사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이런 취약한 민주주의 역사가 일본 우경화의 주요한 배경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한일관계를 걱정했다. 최근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매우 시사적인 강의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 내용은 13년 전인 2006년 김대중 대통령이 전남대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에 대해 강의하고 난 후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 내용이다. 본 강의가 아닌 질의응답 내용까지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위의 영상물을 발췌해낸 것에 특히 박수를 보내고 싶다.

-죽산보·승촌보 철거 논란에 대한 보도 소감을 말하겠다. 영산강에 설치된 죽산보·승촌보 철거문제를 둘러싸고 보를 철거하려는 환경부 및 환경단체들과 보의 보존내지 보완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은 낙동강 등 다른 강에 설치된 보를 둘러싸고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를 둘러싼 논쟁이 주로 환경론자들과 지역 주민들 혹은 환경부와 지자체 등 협소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었고 또 보를 철거할 때도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논쟁의 성격도 물의 보존이 우선이나 환경이 우선이나 등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주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MBC가 이 문제를 일반 시청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심층 보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과거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때처럼 찬반 양측의 주장을 대비시키면서 알기 쉽게 보도하면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내고 또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보도 태도를 취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8월 20일 박기영 칼럼 도중 다른 소음이 여러 차례 흘러나왔다. 다시 듣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것인데 실제 방송에서도 그랬는지 아니면 다시 듣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인지 궁금하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대한 답변부터 하겠다. 민주평화당은 소수 정당이지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진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는 주요 이슈다. 당을 지키는 사람, 당을 떠나는 사람, 당을 떠나지만 대안 연대세력과 함께하지 않고 무소속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지역민으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전국적으로는 아닐지 모르나 광주와 호남으로서는 중요한 시사 이슈라고 판단된다. <라디오칼럼>은 진행상에 잘못이 있었다. 향후 섬세하게 체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자체 제작을 늘리는 부분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되는 것이라 경영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

- 박수인 취재부장 : -광주형일자리인 글로벌모터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많다. 이와 관련에 보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 롯데쇼핑 환원금이나 성평등, 소수자에 대한 관심, 죽산보나 승촌보의 철거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겠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을 가지면서도 시청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낙곤의 시사분석>에 대해서도 제작진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프로그램의 시청등급은 심의부서에서 결정을 한다. <오매 전라도>는 온 가족이 시청하기에 별 무리 없는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방송언어가 간혹 있고, 소재나 주제도 어린이 대상은 아닌 경우가 있어서 12세로 연령고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의견은 스마트미디어사업단에게 답변을 얻은 뒤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는 현재 개편을 진행 중이며 9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 최영태 위원장 : -오늘도 긴 시간동안 감사드린다. 다음 회의는 추석 연휴 이후다. 위원님들 모두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뵙겠다.

끝.